C759-102009.11.2511:38AM페이지1(1,1)

원효성사 '화쟁'으로 화합이끈다

19일, 화쟁문화시민포럼 창립기념대회 갖고 본격 출범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에서 분열과 분쟁으로 치닫는 국론의 화해와 통합의 해법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모임이 출범했다.

화쟁문화시민포럼(이사장 법산, 이하 포럼)은 11월 19일 오후 6시 창립기념대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포럼은 원효성사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기초로 우리 사회의 모든 대립들을 화해와 평화로 되돌리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종교 · 교육 · 문화 · 예술계 200여 지식인들과 뜻을 모아 9월 4일 창립총회를 거쳐 11월 19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사장 법산 스님(前 신라대 총장, 원효총림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오늘날의 지역 · 이념 · 계층 · 노사 등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 사회를 가장 불행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이라며 "이 화쟁사상이 결국 신라의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삼국통일이라는 성업을 이룰 수 있었던 만큼, 오늘에 되살려 온 국민을 하나로 화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화쟁문화시민포럼 창립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는 이사장 법산 스님(원내).

창립기념대회는 개회사, 경과보고, 창립취지문 낭독, 강령 선포, 대회사, 축사, 주요 인사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원효의 화쟁사상과 시민화합'을 주제로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마련돼 포럼의 사상적 근거 및 행동강령이 될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포럼은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을 근본이념으로 △모든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화해로 계도 △모든 시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 △국가와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 △대승불교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되 모든 종교의 평화사상을 존중 △환경을 존중하며 봉사정신으로 활동함을 기본 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법산 스님, 대각사 조실 경우 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 부산종교평화회의장 정각 스님 및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향후, 포럼은 2010년부터 '화쟁문화 시민대학'을 열어 각계각층의 전문 교수진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화쟁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실천으로 봉사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창립 1주년에는 화쟁문화 '평화대상'과 '문화대상'을 제정해 평화와 문화를 받들고 있다는 신념의 증표로 시상하기로 했다. (051)365-0524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선암사 개산 1334주년 선암문예대제 성료

천년고찰 백양산 선암사(주지 원범)가 개산 1334주년을 맞아 원효성사 다례재 및 제1회 선암문예대제를 성료했다.

11월 14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에서 원효성사 다례재 및 영산재를 시작으로 선암사 특설무대와 경내에서 선암장기자랑 한마당, 불무도 시범, 중 · 고등부 백일장 사생대회, 가족놀이 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그리고 축제에 동참한 지역민 전원에 점심, 저녁 공양을 무료로 대접하고, 소년 · 소녀가장 돕기 바자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신청부스 운영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의의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뜻 깊은 축제의 장을 이어갔다.

특히,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된 산사음악회에는 인기가수 장윤정, 퓨전오케스트라 '헤이야', 예림국악원 등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밤 산사를 정겨운 선율로 물들였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홍법사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1기

조계종 국제포교사 시험 전원 합격

강남의 어느 족집게 과외도, 서울대 수석합격자도,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이 지도한다고 한들 학업성취도가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100% 전원 합격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불국토 부산에 처음 개설된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에서 배출한 24명의 응시생 전원이 10월 28일 조계종 국제포교사 시험에 합격해 눈길을 끈다.

요즘이야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에 외국어가 속해있지만 평균연령 50대인 이들에게는 영어 하나만으로도 큰 숙제였을 터이다. 7월 27일부터 약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만으로 전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의 커리큘럼을 직접 제작 · 관리하고, 불교영어 강사 등으로 활약한 국제포교사 이두석 씨는 학생들의 의지에서 비결을 찾았다. 제1기 연수생 총 26명, 그중 시험을 치르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4명의 응시생 전원이 이미 합격해 소귀의 목적을 달성했고, 종강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학업의 열기는 뜨겁다.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36년동안 재직한 후 국제포교사 고시에 응시해 한 번의 고배를 마셨던 전영일 씨에게 이번 합격의 기쁨은 남다르다. "청소년들에게 한문경전으로 불교를 전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불교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종교이고 철학이며 학문입니다."

기업간부로 퇴직 후 국제포교사로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전원경(55) 씨도 무심결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나 청소년, 아이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전하려면 영어 실력은 반드시 갖춰야 해요. 한문투성이인 경구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국제포교사가 아니더라도 불교영어를 익혀야 제대로 포교할 수 있습니다."

전원 합격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그간 이두석 국제포교사와 함께 이번 양성과정 개설에 뜻을 모았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축하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함을 일깨웠다.

심산 스님은 "이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으니 내면을 다져 가슴으로 포교할 수 있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자로서의 신행활동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향후 부산국제포교사모임을 신설해 매월 한 차례 모여 독송하고, 15분 영어스피치, 외국인 문화행사 등에 적극 투입해 실전 경험을 쌓아 국제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사찰에 배치할 예정이다. 부산에 단 4명뿐이던 국제포교사가 이제 28명으로 늘어났고, 오는 3월이면 국제포교사양성과정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의:010-7309-5905 (이두석 국제포교사)

박지원 기자

제14회 조계종 국제포교사 시험에 전원 합격한 홍법사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제1기 연수생들.

53일간 53인의 화엄세계로…

23일 부터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봉행

53일간 53인의 선지식과 함께 <화엄경>의 주인공 선재동자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법석이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11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4일 까지 설법전에서 '53일간 화엄세계로의 구법여행'을 봉행한다.

행사는 23일 종범 스님(전 중앙승가대학 총장)의 '화엄산림의 역사와 의의' 등 <화엄경>의 개괄적인 법문을 시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스님이 법석에 올라 <화엄경>의 각 품에 대해 약 4시간 동안 설하게 된다.

회향법문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이 맡아, <화엄경> 설법과 함께 그간의 소회와 재임기간 동안의 여러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12월 1일 동안거 결제일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이 법석에 오르며, 그 외에도 제방 대덕 스님 50명이 릴레이로 등단해 해박한 경론과 연륜이 묻어나는 사자후를 선보인다.

법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회향일은 2010년 1월 14일이다. 지난 40년 간 봉행하며 매년 15만 명 이상의 신도가 동참하는 화엄산림대법회는 통도사의 연례행사로, 통도사를 넘어 이제 우리나라 불교계의 대표적인 대중법석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7년 정우 스님의 주지 부임 이후 그 규모가 대폭 확대돼, 기존의 한 달이던 법회 기간을 53일로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수행 및 포교 등 한국불교를 이끄는 여러 분야의 스님들을 법사진으로 구성해 주목받았다. 한편, '53일간의 화엄여행' 기간 중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유주무주 고혼들을 위한 극락왕생 천도재도 더불어 봉행한다. (055) 382-7182

박지원 기자

바로잡습니다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 참여인원을 1,500명에서 4,000명으로 바로잡습니다.

부처님 해탈 법문 지표로 인생 공부

17일,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 개원 1주년 기념 법회

올 겨울 부산 · 경남 지역에 첫눈이 내리던 날, 불자들의 뜨거운 신심이 차가운 눈마저 녹여버렸다. 11월 17일 오전 10시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의 개원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대성 스님(전 범어사 주지)이 법석에 올라 특별초청법문을 설했다.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축가, 대성 스님(전 범어사 주지) 특별초청법문, 주지 혜수 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지난 해 10월 초하루 개원법회를 갖고 불교대학 1, 2기 170여 명을 배출하고, 청년회, 일요가족법회, 참선반, 우담바라 합창단, 꽃꽂이반 등 다채로운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성 스님은 특별법문에서 "물질만능주의시대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종교와 그 속에 담긴 진리, 신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살피고 자성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 이곳 삼계선원에서 훌륭한 스님의 가르침 아래 좋은 도반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정진하라"고 설했다.

주지 혜수 스님은 "1년 전 출발한 길상사호가 순항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보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해탈 법문을 인생의 지표로 삼아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줄 알게 돼 즐겁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길상사 삼계선원에서는 제3기 불교대학생을 모집한다.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주 · 야간 각 50명씩 100명을 선착순 접수하며, 3월 7일 입학해 약 4개월 과정으로 예불, 천수경, 찬불가, 사찰예절, 불교교리, 경전 등을 배우게 된다. (055)333-8202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북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